

서울시교육청, 1대1 진학상담 상시화... 사교육 의존 낮춘다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365일·야간 방문·화상 상담 가능
온라인 플랫폼 '센 진학 나침반'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정보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 컨설팅이 필요 없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365일 1대1 진학상담을 확대하고,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도 늘려 학생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인다. 진로탐색부터 성적관리, 과목 선택, 대학 진학 정보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도 강화한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용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1대1 맞춤형 지원 체계로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용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 365일 1대1 상담 컨설팅

서울시교육청은 고입 단계부터 공교육 진학 지원을 강화한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고입 특별상담'과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운영해 고등학교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대입 단계에서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 365일 1대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을 확대하고, 대상과 시기에 맞춘 '집중상담주간'을 연간 4회 늘린다.

현직 교사 100명으로 구성된 '서울진

로진학학업설계지원단'은 중·고등학생의 진로 탐색부터 대입 진학까지 통합 상담을 맡는다.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MAP 지원단' 104명은 학교 신청에 따라 직접 학교를 찾아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현직 교사 114명으로 운영 중인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1대1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플랫폼 '센(SEN)진학 나침반'도 운영한다.

◆ 학교급 전환기부터 진로 설계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급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유·초·연계 '이음교육' 자료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사의 원활한 전이를 돕고, 초·중 학교급 전환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학습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4개 창의예술교육센터, AI교육센터 등에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진학 탐색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수학·AI, 예술·체육, 직업계고 분야는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이주배경학생,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사의 진로·진학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와 네트워크 강화한다.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고교 담임 교사 진학지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와 교과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높은 진학지도 자료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진로, 학업 설계,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성과 따라 예산 차등... 지역대학 지원 개편

교육부, '라이즈' → '앵커'로 재편
예산 나눠먹기 등 기존 한계 개선
지역서 배우고 정착 생태계 조성

교육부가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와 학생 체감도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인 라이즈(RISE)를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로 재편한다.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학생 중심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주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인재의 정착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나, 지역 균형성장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취지를 반영해 명칭을 재정립했다.

구분	예산액
지방정부 자율 인재육성	8500억원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4000억원
매칭인센티브	1000억원
5급3특 초광역 인재육성 (중앙 주도)	1200억원
5급3특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	800억원
특성화 지방대학	3722억원
첨단분야·창업 인재양성	2060억원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5급3특 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예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업 운영을 막고, 지역 학생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라며 "지방정부 간 칸막이를 넘어서

는 초광역 단위 인재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약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성과 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평가해 올해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선정·지원 과정에서의 예산 나눠먹기 여부 △지방정부와 대학 간 소통 수준 △학생·인재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17개 지방정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간 협업 기반의 초광역 단위 사업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5급3특 권역별로 지역대학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유대학' 모형을 도입해 권역 전체의 역량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급3특별 전략산업인 성장엔진 분야별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도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런 멘토링, 정서·예체능까지 통합 지원

서울시, 올케어·독서·동행 3종 신설

서울시가 취약계층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서울런 멘토링'을 올해 학습·정서·예체능을 아우르는 '통합 성장 지원 체계'로 대폭 확대해 본격 가동했다.

서울시는 '올케어·독서·동행' 멘토링 3종을 신설하고, 학부모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지난달 '서울런 멘토링' 운영을 재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런 멘토링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경제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매칭해 학습 지도와 진로·입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반기 1521명의 대학생 멘토단이 선발돼 3월부터 순차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시는 하반기에도 멘토 300명을 추가 선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입시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1대1 오프라인 논술 멘토링'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50명)로 확대한다. 2027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고3·N수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온라인 논술 강의와 연계한 대학생 멘토의 단기 집중 멘토링을 주 1회, 2시간씩 2개월간 제공하며, 입시 직전인 10~11월에 운영된다.

'독서 멘토링'도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 청소년들의 문해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교과서를 넘어 인문·고전·철학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멘토링은 단순히 성적표 숫자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8일 개통

장제로 교통량 분산... 편의성 개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검단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

이번 도로는 광역시도 52호선 일부 구간으로, 연장 3.59km의 왕복 4차로 규모다. 총사업비 1,581억 원이 투입됐다. 2021년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됐다.

도로 개통으로 검단지구 유현사거리에서 계양구 드림로까지 주행거리는 5.

1km에서 3.9km로 1.2km 줄고, 이동 시간도 18분에서 8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장제로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검단은 물론 계양구와 서울 서북부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 개통은 검단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라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 시민 교통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정근식, 예비후보 등록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 등록 방침을 밝힌 뒤, 오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정 교육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김천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현진 기자

운영기관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경기도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 개발과 공공보건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을 가동한다.

도는 공모 절차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단은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투

입해 ▲경기도형 한의택돌봄 모델 구축 ▲한방 난임치료 근거기반 정책 고도화 ▲신규 한의약 공공사업 발굴 ▲정책 홍보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며, 경기도형 한의약 정책의 표준화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핵심 과제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고도화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적 근거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회복, 갱년기 관리까지 이어지는 여성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